

확 달아오른 광주 아파트 분양 열기

EG·호반·영무건설·한신공영 모델하우스 오픈

수요자 수만명 '북적'…100m 넘게 줄서 진풍경

침체의 높이 빠져있던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26일 광주지역 주택건설업체에 따르면 EG건설 'EG the 1'과 호반건설 '호반 베르디움', 영무건설 '영무에다움' 등 지역 건설사 3곳이 지난 24일 동시에 모델하우스의 문을 열고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들 3곳의 모델하우스에는 오픈 당일 장판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1만 5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사흘간 5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파출소 인근에 위치한 EG건설의 'EG the 1' 모델하우스에는 개관 첫날 6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사흘간 1만 8000여명이 북적였다.

'EG the 1'은 '광주의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남구 봉선동에 공급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59㎡ 52가구, 84㎡ A·B·C형 289가구, 107㎡ 3가구 등 총 344가구를 공급한다. 1990년대 5만여 가구를 공급한 (주)리안과 손을 잡고 이 아파트를 문화·예술·교육 아파트로 특화했다.

청약 일정은 1순위 6월30일, 2순위 7월1일, 3순위 7월4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7월8일이다. 분양 문의 062-368-8833.

서구 쌍촌동에 마련한 호반건설의 '수

원2차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에도 주말 1만 7000여명이 방문, 북새통을 이뤘다. 비속에서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려는 예비 수요자들로 100m가 넘는 줄이 서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

오준균 호반건설 분양소장은 "작년에 분양한 수원1차 호반베르디움의 프리미엄과 전세값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가 오는

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수원 2차 호반베르디움은 명품 신도시로 알려진 광산구 수완지구에 수요층이 가장 두터운 전용면적 84㎡(30평형) 434가구(지하 1층~15층)로 구성돼 있다.

청약 일정은 6월28일 특별공급에 이어 1순위 29일, 2순위 30일, 3순위 7월1일이다. 분양 가격은 기준층 기준 2억 2500만원(3.3㎡당 680만원대)이다. 분양 문의 062-383-1000.

광산구 수완지구에 공급하는 영무건설의 '영무에다움' 모델하우스에도 1만

5000여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22일 분양에 들어간 한신공영의 '상무 한신 휴플러스' 모델하우스에도 그동안 2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와 뜨거운 것은 지난 3년간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아파트 분양이 거의 없었던데다 서구 화정·연주주공 아파트 재건축으로 전세 폼귀현상이 빚어지면서 대기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기 수

요자들이 많이 늘어난데다, 최근 매매·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달궈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분양시장 열기는 장마철과 휴가철이 겹치는 비수기인 7월에도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흥건설이 다음달 8일 광산구 하남2지구에 '중흥 S-클래스' 801가구 분양에 나서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도 동구 학동2지구에 분양 아파트 794가구를 공급한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호반건설 '수원2차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 첫날인 지난 24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델하우스 앞에는 예비 수요자들이 물려 100m가 넘는 줄이 서는 등 장사진을 이뤘다.

나주 혁신도시 택지 분양

공동주택·단독주택·주차장 용지 495필지 40만여㎡

나주시 금천면 일대에 조성 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택지 495필지가 분양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도시공사는 26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사업구 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주차장 용지 495필지 40만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LH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송태호)는 공동주택 5필지(25만2044㎡)와 단독주택 435필지(11만9832㎡), 주차장 20필지(2만7185㎡)를 공급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85㎡ 2필지(4만6520~5만6417㎡, 177억480만~214억7131만

광주은행 고졸 행원 뽑는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도 고졸출신 채용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이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총 4명의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와 내년 하반기에도 각각 10명 규모의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은행이 고졸출신 학생들의 금융권 취업문을 엽은 것은 지난해 1월, 3개월간의 인턴십 과정을 마친 상업계 특성화고 3학년 학생 2명을 광주은행

올해·내년 하반기

각각 10명씩 채용

적으로 이를 펼친 우수한 학생들로, 광주은행에서도 현재 본점 내 관련부서에 근무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광주은행 박종광 업무지원본부장은 "고졸출신 직원채용은 사실 은행권에선 광주은행이 원조"며 "채용 결과 우수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 올해 하반기와 내년 하반기에도 각각 10명 규모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스마트 콜택시 서비스

바로콜·SK텔레콤, 고객 위치파악 빠른 배차

광주 콜택시 전문업체인 (주)바로콜이 최근 SK텔레콤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고객위치파악 콜택시 서비스를 광주에서 시작했다.

스마트 콜택시 방식은 고객 위치·반경 범위 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차량 3~5대를 5~30초 안에 검색, 이 정보를 기사에게 전송해 최적의 배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바로콜은 스마트 콜택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콜택시 무전기 방식에서 발생하던 소음 문제와 GPS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 방식이 택시기사와 도로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배차되던 문제를 해결했다.

이업체는 향후 스마트폰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을 활용한 카드 결제 방식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근거리 차량 선택 및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콜 시스템도 개발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바로콜 관계자는 "스마트 콜택시 방식은 고객과 택시기사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스마트 콜택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법무소장직 전문** **법률 "강복단과"** **7·9급 검찰직**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개강 7월 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